



경전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변상도가 그려져 있는 명천 스님의 '우구정광대다라니경 변상도'.

산골 암자에서 정진중인 스님들의 미술품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예술문화박물관 개관 행사에 초청됐다. 이에따라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가 미국 전역에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예술문화박물관 이전개관 기념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한국관 행사가 그것이다.

이번 박물관 이전은 미국 교포 이종문씨가 거액의 돈을 기부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작가들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향운암의 수좌인 명천스님과 경남 거창군 대평리 유리원의 비구니인 재우스님, 충

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공주포교당의 화승인 성범스님이다. 이 세 스님은 이번에 사천왕 탱화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변상도, 팔만대장경판사본 등을 선보인다.

명천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가로 30cm, 세로 3m60cm 안팎의 '우구정광대다라니경' 변상도 3점(한글본, 한문본, 범어본)을 관람객들에게 내놓는다.

명천스님은 박물관의 요청을 받고 이 그림들을 지난해 초 이미 기증했



명천스님

### 명천·재우·성범스님 개관행사에 초청

### 변상도·사천왕탱화·대장경판사본 전시

다. 85년 출가후 불교미술에 심취한 명천스님의 변상도는 금가루와 사슴뿔 아교를 섞어 만든 불감으로 삼화를 세밀하게 그려내는 수작으로 평

# 불교미술 정수 미국에 선된다

12월 2~30일 美아시아 문화박물관서

가받고 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해 1980년대 중반부터 탱화연구에 매진해 온 재우스님은 이를 위해 1년 전부터 '사천왕' 탱화를 그리고 있다.

이 탱화는 가로 2m40cm, 세로 3m60cm에 달하는 대작으로 천연안료인 석채로 그려져 독특한 색깔을 띠고 있다. 재우스님은 현재 한달간 탱화의 마지막 부분과 마무리 작업을 현지에서 한 뒤 집안 식을 거쳐 한국불교미술의 홍보를

위해 박물관에 기증키로 했다.

성범스님은 팔만대장경판, 성덕대왕신종, 석굴암 보살상 문양, 전불, 혼민정음, 직지심체요절, 외당물 등 10여점의 사본을 가져가 탁본 시연 행사를 마련해 한국 불교문화와 금속활자 및 목판기술 등 한국불교예술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명천스님은 "이번 전시회는 현재 아시아문화박물관장으로 있는 백금지씨의 주선으로 지난해 내 작품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현지 행사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100여명도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5월 의상대사 11월 장욱진 화백

문광부, 2004년 '이달의 문화인물' 발표



의상대사

문화관광부는 지난 11월 1일 2004년도 '이달의 문화인물'을 확정 발표했다.

12명의 문화인물 중 불교계에서는 의상 대사가 5월, 장욱진 화백은 11월의 인물로 각각 선정됐다. 의상 대사는 신라시대 당나라 지엄 선사로 스승으로 화엄종을 연구한 뒤 귀국, 해동 화엄종을 창시한 고승이다.

1948년 김환기, 유영국, 이규상 등과 함께 신사실과 동인으로 활동한 장욱진 화백은 작품세계를 통해 불교적 철학사상을 담아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달의 문화인물'은 각계에서 추천받은

37명의 역사인물 중 선정자문화의 검증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평가받는 인물을 최종선정 한 것이다. 지난 1990년부터 매년 시행돼 왔으며, 올해까지 모두 175명의 문화인물이 선정됐다.

2004년 이달의 인물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1월 조희룡(시서화 3월 화가) △2월 신홍(조선중기 학자·정치가) △3월 이항로(조선말 사상가) △4월 이경석(조선중기 문신) △5월 의상대사(신라시대 고승, 화엄종 시조) △6월 백광훈(조선 8대 문장가) △7월 이침(조선 초 시인) △8월 김창조(가야금 산조의 명인) △9월 조현(조선중기 문신, 의병장) △10월 최항(한글창제 공헌) △11월 장욱진(화가, 신사실과 동인) △12월 박두진(청록파 시인)

한상희 기자



장욱진 화백

### 전시회 2편

## 중광스님 다시 만난다

22일까지 시몬갤러리서 유작展



중광스님의 '선화(禪畵)'.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났던 부처님 곁으로 떠난 '결례 중광 스님'. 그의 회고전이 11월 22일까지 신사동 시몬 갤러리에서 열린다. 197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선화와 도자기 테라코타, 플라주, 유화 등이 어디에도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중광 스님의 예술정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20여년간 중광 스님 곁에서 수발을 들었던 김옥수씨의 협조로 모을 수 있었다. 작품마다 드러나 있는 간략한 선묘와 깊이 있는 색채가 스님의 호방한 성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선화(禪畵)에는 어린이 같은 투박함 속에 기존의 틀을 부정하고 마음껏 뛰어오르려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드러나 있다. 또한 구상과 추상을 뛰어넘어 회화를 하나의 정신적 구도의 표현으로 승화시킨 중광 스님의 정신세계가 물씬 풍겨난다. 갤러리 측은 "중광 스님의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02)549-3032 김주일기자

## 귀일스님 기와 그림展

16일까지 부산 현대아트갤러리서



귀일스님 작 '부인용면'.

용전시관 건립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051)667-0880 김주일기자

경북 안동 봉정사 지조암의 귀일 스님이 불교미술이자 전통문양인 기와 그림전을 11월 16일까지 부산 현대아트 갤러리(현대백화점 8층)에서 개최한다. 기와 그림은 삼국시대부터 사찰이나 궁궐의 처마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귀면(잡귀를 쫓는 도깨비 얼굴)이나 사천왕 등 불교의 호법 신장들이 그려져 있다.

귀일 스님은 조선시대 이후로 사라졌던 기와 그림의 전통을 되살리고 불교미술이 생활속에서 장식돼 쓰여지기를 발원하며 5년 전부터 복원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남편용면', '보살화', '보살상', '연꽃차탁', '황금귀면' 등 1백여점을 선보인다.

귀일 스님은 "중종그림과 부도비 조각, 연꽃문양 등을 활용해 그린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지조암에 귀와그림 전

**방송 프로그램**

<b>BBS</b> <b>불교방송</b>	<b>B</b> <b>net</b> <b>tv</b> <ch 32>
05:45 고승열전	서울 FM 101.9 MHz
08:55 우리들의 찬불가	부산 FM 89.9 MHz
11:10 행복스튜디오	대구 FM 94.5 MHz
12:00 정오 종합뉴스	광주 FM 96.7 MHz
14:05 김용우의 국악발견	대전 FM 100.1 MHz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12월 11:30 정경스님의 참선요가**  
**13월 20:10 불교TV 미디어컬 건강이 최고**  
**14월 08:30 하재봉의 영화산책**  
**15월 19:30 성운대사 불경강좌**  
**16월 11:30 불교TV 스페셜 영명사 음악회**  
**17월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 ▷ 김용우의 국악발견(11월 16일, 14:05-14:45) = 젊은 소리꾼 김용우 씨가 진행하는 국악프로그램. 16일에는 소리와 재담이 어우러진 남상일의 '관소리 따라잡기'와 민요 이야기 등이 방송된다.
  - 불교텔레비전
    - ▷ 불교TV 미디어컬 건강이 최고(11월 13일 20:10-21:00) = 국보학원원 양희정 원장과 함께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잦은 두통부터 신경질까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린이이도 걸릴 수 있다는 만성피로 증후군의 치료법을 살펴본다.

##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조성불사 권선문

**비로자나불 대작불사 발원**

**권선안내문**

귀의 상보하옵고  
 소납 산승은 40여년 동안 수행하면서 대작불사와 포교활동에 전념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석조불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0일 기도중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받아서 큰 환희심으로 대작불사에 큰서원을 세워서, 자각한 신심으로 비로자나불 석조불상 조성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다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한마음 크게 내시어 큰 공덕 지으시고 맑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연공덕으로 하시는 일 마다 소원성취 하시옵시고 세세생생에 성불 하옵시길 향피워 발원 드리옵니다.

이번 덕왕사불사에 동참하여 주시는 선남선녀 사회제위 여러분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비각에 새겨 영원이 빛나게 하였습니다.

- 설판불사 (100만원 이상)
- 가족동참불사 (30만원)
- 동참불사 (10만원) 또한 범종불사도 함께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참금 계좌번호>  
 · 농협 729-02-117074 · 국민은행 622-24-0064-982  
 · 우체국 700435-02-005878 ※ 예금주: 유재아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녹남 455-5번지  
**일출산 덕왕사** 주지 유용각(만덕)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휴대폰 011-522-1237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인과응보의 원리와 권선징악의 진수를 다룬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아동문학가 함재수 법사님의 주옥같은 법회교재 결정판!

**함재수 법사님의 낭독 동화극장**

## 어린이의 새벽

'어린이의 새벽'은 아동문학을 법회 교재용으로 주목시킨 고귀한 6바라밀 금자탑입니다.  
 '어린이의 새벽'은 우리나라 포교 역사에 획을 긋는 한 줄기 등불입니다.  
 '어린이의 새벽'은 사바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끌고 밝고 맑게 일깨우는 함재수 법사님의 혼불입니다.

법회교재 한 권 없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면서 이 한 권을 사바세계에 남기고 가련다.  
 그 나머지는 후세의 몫이다.  
 - 함재수 법사님의 책머리 전문 -

함재수 법사님의 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어린이의 새벽'이 한국 불교계에 새 지평을 여는 시금석이 되기 바랍니다.  
 -전 중영승가대종교 총장 林松山-

함재수 지음 / 신국판 / 384쪽 / 정가 9,000원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저자: 부처의 생애, 제2판: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sakyamuni Buddha)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와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초기공법  
**건강을 부르는 기**  
**부름 부르는 기**

몸과 정신건강의 혁명 현대병 치료의 한계를 기공으로 간단하게

이영일 편저 · 사륙판 · 212쪽 · 양장본 · 값 12,000원

**생명의 원천을 활성화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건강법**  
**핵산! 암을 이기다**

'암으로 1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죽음의 선고에서 기적으로 살아난 암 환자의 기쁨의 소리! 이제 병원에서도 상용하기 시작한 핵산의 경이로운 효과를 알기 쉽게 해설한, 바로 그 책!

히로야키 겐수, 미야나가 요시아키 지음 · 사륙판 · 190쪽 · 양장본 · 값 12,000원

**리움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61-15 광성 B/D 3층 T. 921-8434 F. 929-3470